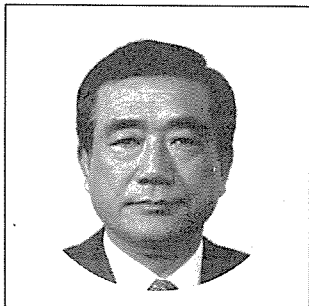


기업의 기술개발활성화

“技術개발支援체제 再整備시급”



朴 宇 熙
(生産技術연구원장)

技術發展 필요성의 國民的 合意

우리 經濟社會는 지금 소위 總體的 難局(Total Crisis가 아니라 Multi-dimensional Crisis)에 처해 있다고들 하며 이를 돌파하는 방안의 하나로 科學技術의 革新을 흔히 들고 있다. 사실 우리는 政治民生化過程에 접어들면서 經濟發展과 政治發展을 함께 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고, 여기서 階層間 갈등과 勞使紛糾, 더욱이 여러 가지 形態의 均衡成長 및 經濟正義의 요구마저 함께 겹치면서, 韓國 資本主義體制의 최초 및 최대의 위기상황에 빠져들게 되었다.

經濟成長이 1년사이 반으로 뚝 떨어지고 國際收支가 흑자에서 적자로 反轉하였으며 物價는 2배로 경총 뛰어오르는등 급경사의 내리막길을 치닫고 있다. 土地 및 金融, 證券의 큰 덩어리가 金融·財務政策의 파인슈팅을 무력화하게 하고 있고 따라서 政治的, 社會的 大改革없이 어떤 微視·巨視經濟政策도 效力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經濟社會는 지금 多面的 難局狀況에 빠져있다.

이런 難局을 돌파할 수 있는 활로는 産業平和와 國民意識改革 및 技術革新에 있다고 말해지고 있으며, 이중 技術革新이야말로 단기적인 대책을 넘어 中·長期的 돌파구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생각이 가장 강한 힘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중 技術革新의 중요성은 거의 國民的 合意에 도달한 느낌마저 주고 있다.

學校에서도, 言論界에서도, 大企業은 물론 中·小企業마저도 지금같은 賃金上昇과 경쟁력 상실 속에서 生産과 投資, 그리고 輸出을 늘릴 수 있는 길은 技術혁신이라는 생각을 한층 더 깊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生産과 수출, 그 자체에만 치중한 나머지 技術을 등한시 했기 때문에 이제 技術의 바탕없이 어떠한 生産도, 어떠한 수출도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인식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産業技術과 文明, 그리고 國富의 創出

그런데 이러한 總論의 걸장을 한장만 넘겨보면 政策立案者나 大學教授, 특히 科學技術界의 尤수

한 專門家들사이의 各論은 가지각색이며, 지금 상태로는 또 지금의 제도와 행정으로서는 어떠한 바람직한 결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또한 잊어서는 안된다.

産業技術과 國富

먼저 科學技術中에서도 産業技術이 國富의 創出源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산업혁명 이후 그간 여러번의 큰 景氣變動(콘트라티에프등)이 있었으며 각기마다 全 産業을 주도한 기술혁신이 있었고, 이때마다 科學과 基礎技術이 長期的으로는 바탕이 되었지만 그 期中의 生産과 投資, 輸出을 늘리고 이끈 것은 産業技術이었으며 이러한 産業技術 또는 生産기술이 그 당시 文明의 基礎가 되었음은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다.

이러한 예는 美國이 헨리 포드의 콘베어벨트식 연속작업을 통해 自動車産業은 물론 美國의 文明을 이끈 사실, 그리고 지금은 일본이 民需用 電子技術을 통해 世界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실등이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20세기 후반의 위대한 발명품인 레이저는 1950년대에 소련에서 이론을 발표하였고 1970년대에 美國이 實驗室에서 응용에 성공하였으나 실제로 레이저 應用機器가 생산된 것은 1980년대 들어 일본에 의해서였고, 이를 통해 일본이 尖端技術의 王國인 美國을 능가하게 된 것 또한 마찬가지 실례가 된다.

먼 옛날 카르타고를 이긴 로마의 生産技術, 징기스칸의 기마대 輕量化를 성공시킨 生産技術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조차 없다 하겠다. 基礎 科學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企業의 生産과 직결되는 産業技術화하지 않고서는 아무 소용이 없으며 지금 우리가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産業技術의 革新, 여기에 있음을 직시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産業技術의 現住所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의 産業技術 도는 生産技術의 現水準은 오토바이 한대 제대로 설계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제품의 품질을 결정

하는 금형의 加工精密度는 일본에 비해 아직도 1,000배나 거칠고, 수명은 5분의 1에 불과하다. 반도체에서 256K D RAM을 양산하고 있고 1메가 D RAM을 완료하였으며, 4메가 D RAM과 16메가 D RAM의 개발에 착수하고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設計와 部品, 素材 및 製造設備는 대부분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대만보다 賃금이 싼데도 生産技術이 부족해 製品價格이 훨씬 비싸게 되고 있다. 그 예로 韓國과 대만의 賃금은 100 : 130정도이지만 퍼스컴과 자전거의 가격은 그 반대로 130 : 100정도가 되고 있다.

우리의 産業技術은 지난 30년간 經濟成長을 거듭해오는 과정중 특히 重化學工業을 발전시킨 1970년대 이후 外國에서 수입한 生産財와 제품, 素材에 體化된 기술을 모방 소화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약간의 개량은 있었지만 대부분 製造技術(공장설계, 설비장치, 가동, 유지, 보수, 운영 등)에 국한되었고, 여태껏 한 번도 본격적인 R&D는 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데도 과언이 아니었다.

최근 2, 3년전부터 大企業이 技術研究所를 만들고 있고 人力과 裝備를 갖추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있으나 아직도 바람직한 R&D체제는 갖춰지지 못하고 있다. 그간 政府傘下 여러 出捐研究所들만이 産業技術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긴 하였으나 이들 역시 여러가지 제도적인, 또 운영상의 문제때문에 産業技術의 製品化, 企業化 그래서 技術발전을 통해 生産單價가 하락되고 제품의 품질이 향상되며 이를 통해 輸出競爭力까지 제고되는 그러한 研究開發은 하나 둘 손꼽을 정도에 불과하며, 대부분 企業의 현장과 단절된 實情에 있다.

이와 같이 産業技術이 政府와 大學 및 出捐機關은 그들 나름대로, 企業은 企業나름대로, 단층을 이루고 있는 이유는 大學은 高級人力의 80%가 몰려있으나 理論的인 基礎構築에 관심을 둘뿐 産業技術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으며, 出捐研究所도 그 特性上 各 研究員의 專攻에 집착, 外國에서 배워 온 基礎研究등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기술에는 무관심하였으며, 따라서 연구결과가 생산현장에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도 일부 대기업만을 제외하고는 산업기술의 연구인력이 극히 부족하여 자체 연구개발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외국기술을 그대로 수입하거나 외국제품속에 체화된 기술의 모방에 그쳤을 뿐 나름대로의 고유기술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全國적으로 50,000명 정도의 연구인력이 있다고 하나 정작 우리 산업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산업기술을 개발, 보급해줄 專門研究機關과 연구원은 그리 많지 않으며 이 또한 여러 기관에 산재하여 綜合機能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같은 制度나 行態를 그대로 두는 한 연 3천억이상의 豫算投入은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2, 3년내에 2조6천억원을 투입하겠다는 政府의 施策도 큰 구멍이 뚫린 채 효율극대화의 길을 걸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물론 지난 20년간 大學이나 出捐研究所의 科學技術發展寄與는 나름대로 상당하였다고 본다. 高級頭腦의 유치와 逆流防止, 造船, 重機械, 自動車 등 基幹技術의 기반확립, 科學技術의 蓬토조성과 지식축적, 國際共同研究 등 지금까지는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한 면도 물론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産業技術, 이것이 기업에 흘러 들어가서 現場化하고 新製品, 新工程, 시스템이 개발되어 생산과 輸出擴大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하는 면에서는, 또 이것이 지금의 난국을 돌파하고 앞으로의 産業構造 高度化에 기여한다는 면에서는 그리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지금의 制度를 改革하지 않고 현상에 안주하거나 매몰되어 있는 한 逆機能의 가능성이 없지 않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科學技術政策, 나아가 이것이 産業政策과 經濟政策에 이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단층과 물이해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제부터는 産業技術 또는 生産技術이 製造企業의 기술 경쟁력 향상에 이어지는 政策을 강구해야 하는 그러한 시점에 당도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企業에의 産業技術流入方案

政府 및 企業이 技術投資를 더 많이 해야 한다거나 또 얼마만큼 투입해야 한다는 論議는 그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고, 그대신 企業의 技術開發 활성화를 위해 어떤 制度和 運營, 또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인가 하는 등, 지금 당장 꼭 풀어야 하고 또 사실 그리 풀기쉽지 않은 다음 3가지 점에 유의하면서 論議를 전개키로 한다.

研究開發組織體의 效率的 運營

研究開發을 담당하는 조직, 특히 政府出捐研究所나 企業附設研究所는 그 組織을 극도로 효율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研究開發이란 원래 위험성이 크며 그 결과가 불확실하고 많은 資金과 長期間이 소요되면서도 성공율이 극히 낮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정은 이러한 특성에 너무 오래 안주해왔으며, 그간 固定俸給을 받으면서 연구를 하든 안하든 그리 명시적인 責任을 지지 않고, 또 研究結果를 소홀히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것 때문에 많은 人件費와 經常費를 투입하면서도 바람직한 결과를 시현하지 않은 상황을 너무 오래 지속해 왔었다.

이제는 이러한 자세를 바꿔야만 한다. 各 研究員이 가능한 한 企業이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産業技術을 製品化, 企業化하고 결과가 좋으면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으며, 나쁘면 그 만큼의 책임을 지는 獨立採算制의 組織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獨立採算制는 프로젝트의 客觀的 評價와 研究員의 철저한 고과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制度上 契約制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프로젝트의 評價는 企業이 하도록 하고 公開發表하며 考課는 공식화하여 사전에 數値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考課를 바탕으로 일정기간의 契約制를 實施하여 R&D의 均살을 철저히 제거해야만 한다. 물론 大學이나 基礎科學技術研究所는 獨創性 발휘를 위해 이와 다른 組織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겠지만, 産業技術의 革新을 위해서는 철저한 自己改

革이 꼭 필요하게 되어 있다.

企業의 R&D組織도 바뀌어져야만 한다. 인노베이션은 필연성과 우연성,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産物이며 最近의 尖端技術은 더욱 그러한 특성을 짙게 나타내고 있다. 企業 스스로 오리지널한 産業技術을 연구개발하기 위해서도 그 밑바탕이 되는 企業內 組織을 잘 구성할 필요가 있다. 企業이란 원래 收益性없는 프로젝트는 하지 않게 돼 있지만 企業內 技術研究所가 營業 및 마케팅 부분등 다른 組織과 잘 연결된 상태에서 밀접한 정보교환을 통해, 研究開發 테마의 설정에 있어서도 生産 및 販賣部分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결정되는등 R&D기능이 극히 需要 및 市場指向의 이 되도록 組織되어야만 한다.

研究開發資金도 다른 부분과 격리되지 않은 채 응용연구 商品開發을 위한 연구등에 탄력적으로 배분되게끔 짜여져야 하며, 研究者의 캐리어 파스도, 20세 후반까지는 研究開發支援業務 및 被教育段階, 30대 전반에는 한사람의 技術者로 성장하는 단계, 35세 전후에서 40대까지는 프로젝트 리더 등 브레인 매니저먼트단계, 그 이후는 研究開發에서 떠나 管理職으로 이행하는 단계등으로 나누는 등 人力活用品에도 효율성을 제고시켜야만 한다. 生産工程의 効率化, 具體的 商品의 이미지를 지닌 需要牽引型의 研究開發從事者의 캐리어 파스가 생겨나도록 해야만 한다.

産業技術의 企業移轉

政府出捐研究所에서 연구개발된 것이든, 외국에서 기술을 가져온 것이든 이것이 企業內에서 製品化되고 競爭力 제고를 통해 生産과 輸出이 증가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금대로는 그 단층이 너무 깊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技術開發이 企業現場과 이어진다는 것은 그 안에 技術以外에도 경영, 노사관계, 조직, 자금 나아가 市場調査등 經營과 經濟 모두가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産業技術이 연구개발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製品生産에 성공, 利益을 얻는다는 보장이 있을 수 없으며, 개발되어도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한 두 件이 아니다.

이것은 研究所內의 技術과 企業技術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뜻도 된다. 철저히 市場需要와 결합되어야 하며 企業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미리 알아 이것을 研究開發해야하고 일단 개발되는 경우 資金 및 管理支援을 통해 열매를 맺을 때까지 뒤를 돌봐 줄 必要가 있다. 生産은 地方, 개발을 서울이라는 현상이라든가 工場에 技術者가 가지않으려는 價値觀, 産業技術도 尖端에만 치우치려하는 성향, 코스트에 맞지않는 研究開發도 서슴치 않는 풍토, 이러한 것들도 기술이 企業에 흘러들어가는데, 또 技術이 製品化하는데 장애물이 된다.

出捐研究所는 프로젝트수행시 企業의 研究者가 참여, 共同研究하며 學習하는 기회를 넓혀야 하고 開發結果를 企業에 이전, 製品化할때 研究員 자신이 벤처기업의 責任者가 되는등 誘引策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研究者의 學位取得으로 연구 인센티브를 제고하는 등 이렇게 해서 中小企業의 尖端技術化를 도모하는 방안도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工業基盤 技術基金, 中小企業調整基金, 工業發展基金등 企業에 出捐하거나 融資하는 자금의 관리가 지금 같이 자금을 배정하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되며 사후추적과 中間進度 및 結果確認을 꼭 할 필요가 있다. 出捐研究所의 高級人力이 자금을 받은 企業에 직접가서 책임을 지고 技術擔保하는 제도도 확립되어야 한다.

또 한편 中小企業은 自己가 하고 있는 일, 특히 기술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안다해도 더 고급의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出捐研究所에 와서 쉽게, 또 편리하게 技術相談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研究所의 高級人力은 직접 기술현장에 가서 지도함으로써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企業의 尖端技法習得에도 도움되게 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企業이 필요로 하는 技術開發을 도와주기 위해 충분한 研究空間, 최신의 研究裝備, 最高級 研究人力을 확보하여 中小企業이 언제나 즐거이 접근할 수 있고 또 해결가능성이 높은 體制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研究開發의 技術選擇

우리가 시급이 풀어야 할 세번째 課題는 어떤 産業技術을 먼저, 또 중점적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있다. 人工衛星을 띄운다든가 生命體의 신비를 다룬다든가 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 科學技術處가 발표한 尖端技術發展 5개년계획이나 商工部가 발표한 尖端産業發展 5개년계획, 이것을 종합한 經濟企劃院의 첨단기술 및 산업발전 7개년계획, 이 모두 尖端産業을 앞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과 방향제시에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 모두 액션프로그램이 아니며 1, 2조원의 資金을 가지고 당장 어디에 投入, 개발해야 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해결에는 직접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 經濟難局克服을 위한 기술개발특별대책을 봐도 기술개발의 短期課題와 中長期課題를 많이 열거, 年度別 所要豫算까지 계산하고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 현실성은 그리 높은 水準에 와 있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 물론 政府나 企業의 技術開發時 方向제시에는 크게 도움이 되고 있으나 너무 나열적, 포괄적 그리고 중첩된 것이 많기 때문에, 나아가 그 所要額數가 政府 및 企業의 다른 예산과 조화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收益性 및 經濟性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企業으로서도 또다른 연구가 필요하게 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産業技術은 新製品, 新工程, 新素材, 시스템, 基盤技術 등 물론 여러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産業技術들이 企業의 경영과 생산성, 투자등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雇傭과 經濟成長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技術自體만을 나열해선 그리 큰 도움이 될 수 없다. 産業技術 가운데는 돈이 많이 들면서도 개발하기 어려운 것이 있고, 또 尖端技術가운데서도 그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것중 집중투자만 하면 세계유수의 開發國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다. 예컨대, HDTV같은 기술은 市場需要, 生産性向上率, 收益性등이 크면서도 그 源泉技術의 해결이 이제 우리 손에 닿을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技術開發支援體制的 再整備

지금까지 産業技術開發을 위해 政府의 租稅支援, 金融支援등은 물론 政府購買, 연구요원 병역 특례, 중소기업기술지도, 민간협동연구촉진, 産業財産權 出願 및 등록, 環境基準制定, 기술기반 및 환경조성등의 여러 지원제도가 많이 제안된 바 있다. 技術 및 人力開發投資促進을 위해 稅率을 낮춘다든가 실험연구용 시설투자를 위해 關稅率을 감면한다든가, 또 國內開發技術의 企業化 촉진을 위해 投資稅額控除 및 特別償却制度改善, 또 技術開發資金支援을 위해 技術信用保證基金의 자본금확충등 여러 시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다.

우리는 여기서 단 한가지만 제기하고자 한다. 이번 臨時國會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追更豫算 審議에 政府가 공약한 科學技術, 특히 産業技術發展을 위한 資金投入이 다른 財政上의 필요에 의해 축소되지 않도록, 그래서 歲計剩餘金의 상당부분이 지금의 난국을 돌파할 技術開發에 흘러들어가도록 꼭 당부하고 싶다.

만일 國民株發行등과 연계되어 또 다른 財政上의 이유때문에 産業技術開發의 資金配定이 소의되는 한 政府의 對國民公約은 물론 지금의 國民的 合意를 무시하는 처사가 될지도 모른다. 특히 産業技術의 研究開發과 人力養成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生産技術研究院은 지금을 출발점으로 하여 앞으로 1994년까지 충분한 研究空間, 최신의 研究裝備만 제공한다면 最高級의 人力과 獨立採算制 運營으로 앞으로 2000년에 世界 제일의 10대 생산기술과 100대 주변기술을 확보, 附加價置 및 國富창출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結 論

지금은 農業革命과 産業革命을 거쳐, 이제 기술이 軸이 되고 技術에서 國부가 창출되는 技術革命時代에 들어서고 있다. 韓國도 마찬가지로

다.

기술 중에서도 産業技術 또는 生産技術이 지금의 제도를 조금만 개선하고 支援體制를 정비만 한다면 이런 기술이 企業에 흘러들어 競爭力을 강화, 어지간한 賃金引上이나 社會費用上昇도 극복, 先進福祉經濟를 형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이다.

우리는 모두 時代的 使命感을 갖고 흐트러지지 않는 政策을 꾸준히 추진시키기만 한다면 기필코 技術先導의 經濟社會發展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용단이 지금 가장 진요히 요청되고 있다.

—蜂蟻이 세균을 죽이는 강력한 새 抗生物質일 수도—

벌이 집을 짓기 위해서 생산하는 풀이 일련의 일반세균을 죽일 수 있는 항생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런던에 있는 국립심폐연구소의 두 의사가, 새로운 항균제를 발견하기 위해 많은 식물과 식물에서 추출한 물질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것이다. 특히 그들은 현재 알려진 항생물질에 대해 耐性을 가진 MRSA(메티실린耐性抗生葡萄球菌)로 알려진 「슈퍼 벌레」를 죽이기 위한 물질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미생물학 상급강사인 존 그렌지 박사와 유사요법(類似療法: 호미어퍼시) 의사인 로널드 데이비 박사, 두 연구원은 얼마 전 영국 왕립의학협회에, 봉랍(蜂蟻)으로 알려진 이 벌풀이 미래의 의약의 기초를 이룰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들은 봉랍이 MRSA와 일부 세균의 성장을 완전히 막고, 다른 많은 세균은 부분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 樹脂性 봉랍은 벌이 나무

즙에서 추출하여 집을 지을 때 틈새를 막는데 사용한다는 것은 알려져 있으나, 그 항생효과와 정확한 성질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이것은 플라보노이드(황색 식물색소의 기본물질인 플라본의 탄소골격을 가진 식물색소의 총칭)라는 물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결과 플라보노이드가 연골, 피부, 심지어 뼈까지도 재생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심장마비에는 血栓溶解藥을 조기에 투여하면 效果—

영국에서 실시된 1,258명의 심장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마지막 보고는, 심장마비 후 “凝血을 부수는 약”을 조기에 투여하면 생존률이 증가한다는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활성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약을 주사한 환자 634명 가운데, 12.1%인 77명은 심장마비 후 한달 만에 죽었고, 17.8%인 113명은 1년 만에 죽었다.

이에 비해 「아니스트레플라제」로 알려진 血栓을 용해하는

약으로 치료한 환자는, 624명 가운데 40명(6.4%)은 한달만에 죽고, 69명(11.1%)은 1년 만에 죽었다.

이 숫자는 아니스트레플라제를 사용한 경우, 한달만에 죽은 사망률은 근 50%가, 1년만에 죽은 수는 43%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생존률의 “매우 의의깊은” 증가라고 연구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환자를 다시 다른 위험요소별로 분류해 보아도 같은 사망률 감소를 볼 수 있었다. 한 대변

인은 논평했다. “바꾸어 말하면, 이런 위험요소로 말미암은 心筋梗塞 뒤의 죽음의 위험이 크면 클수록, 아니스트레플라제 치료에 의한 혜택은 그만큼 크다.” “이 발견은 심근경색을 제때의 경색후 치료와 함께 정맥혈전용해 치료를 하는 경우, 제때의 치료만의 경우와 비교할 때, 70세 미만의 심장마비 환자의 생명이 1년까지 연장되는 실질적인 생존률 증가의 혜택이 있다는 것을 더욱 강력히 입증하는 것이다.”